



친환경농업 이모저모

유기축산연구모임발족

순환유축농업을 통한 유기농 정착과
청정환경보전을 목표로 활동키로

지난 7월 8일 농진청
축산연구소에서 유기축
산의 발전을 위한 모임
이 있었다. 참석한 축산

인들은 이날 유기축산의 개념 미정립 등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미래 축산발전을 위한 친환경 유기축산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이와 아울러 (가칭)한국유기축산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임시회장에 건국대학교 강경원학장을 14명의 발기인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들 축산인들은 이날 모임에서 유기축산은 무엇보다 사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각종 사료 첨가제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환경개선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축사의 구조개선, 초지, 운동장과 방목장 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들 축산인들은 나아가 생산 농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유통구조의 개선 등 필요시 대정부와 관련 학계나 산업계에도 협력을 받아 유기축산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유기축산연구회는 앞으로 8월 중순 경 제2차 발기인 대회를 열고 8월말 창립총회를 갖고, 친환경유기축산 세미나를 열어 유기축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유기축산 확대정착을 위한 연구방향을 정립하고 기술개발과 산학연의 현장 정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농종축산과 연계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퇴비로 순환유축농업을 통한 유기농을 정착시키고 청정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조할 목표이며,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유기축산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회의는 8월 30일 세미나에서 회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입시킬 예정이다.

농진청, 친환경유기농업발전위한 사례집 발간

농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와
농원과학기술원 '유기농천국'에서 열람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고객 제안과제 종합
분석 업무혁신 사례집'이
발간됐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정책, 품질인증 제도 등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제안한 과제를 7개 분야 58건으로 요약, 각 분야별로 추진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고객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농촌진흥청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31일 진흥청 대강당에서 친환경농업인, 환경농업단체, 관련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기술 개발확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때 설문문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업발전을 위한 고객제안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고객제안내용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친환경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와 농원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유기농천국'에 게시된다. 농진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고객제안내용을 금후 친환경 유기농업 연구과제의 발굴과 사업수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중심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 종합토론에 이어 공동선언문 선포

생산자·소비자들의 상호협력
전문분류센터 설립 등 11개조항

울진엑스포 기념행사로 열린 1·2부
의 국제학술포럼에서 마무리를 하며 중
합토론에서는 정진영 회장, 서종영 농림
기술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해 심재천 국

립종자관리소장, 이상영 농협유통 사장, 이주삼 연세대학교 교수, 이태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정삼목 광당생명살림 대표 등 7명이 참석, 이틀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재확인했다. 정진영 회장은 유기농업의 확대보급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숙원과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심재천 국립종자관리소장은 향후 유기농업의 개발·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이상영 농협유통 사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따른 소비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했다. 종합토론을 마치고 국제학술포럼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공동선언문이 공식 선포됐다. 친환경농업 공동선언문에는 친환경·유기농업이 유일한 대안농업임을 전제로 ◊생산자·소비자 연대의 상호 협력 ◊생산자·정부간의 상호발전 ◊기술개발과 시장 인프라 구축 등 과감한 정부지원 ◊정부산하 유기농업연구소 설치 ◊친환경·유기농산물 전문분류센터 설립 ◊농협의 친환경·유기농산물 판매기능 강화 등 11개 조항으로 마련됐다.

약이 되는 웃음, 약이 되는 웃음 운동

설영익(상육대학교 교수, Tel.017-231-1960)

인도 서부도시 뭄바이에는 웃음운동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웃음 클럽 인터네셔널"이 있어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의약과 기술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있는, 건강제일주의 바람이 전 세계의 선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명 웰빙 바람이다. 그렇지만 과학의 발달에 비해서 사람들은 병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고사를 제외하고 정신 문제가 인간질병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시각이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한다. 그리고 미소(smile)를 시작으로 낄낄 웃음(giggle), 깔깔 웃음(sniggering)에 이어 배꼽을 잡는 웃음(laughter)으로 이어진다. 새벽길을 걷는 주민들은 발을 뚱뚱 구르고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박장대소하는 모습에

신기한 듯 힐끗 쳐다보고는 못 본 듯이 가던 길을 재촉한다. 이것이 바로 "웃음 클럽 인터네셔널"이다. 건강을 위해 모인 스포츠클럽이지만 체육관도 사무나장도 찾아볼 수 없는 학교운동장 안에서 웃으면서 맨손으로 요가하고 웃는 클럽이다. 웃음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시작된 이 클럽 활동은 현재 뭄바이를 비롯해서



결국 인간이 내·외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웃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체에 약이 되는 웃음과 웃음을 통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웃음 운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인도로 가보자. 인도 서부 도시 뭄바이에 새벽이 오면 시침 가까운 공터와 학교에

인도와 세계 여러 곳으로 확산되었다. 웃음 클럽 인터네셔널은 뭄바이의 의사 "마단 카타리나"씨가 창안한 것인데 그의 말을 빌리면 처음에 이 클럽을 시작할 때는 5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신문이나 방송들이 이 클럽을 후광했지만 1주일도 되지 않아 100명의 회원으로 증가하였고, 1개월이 지났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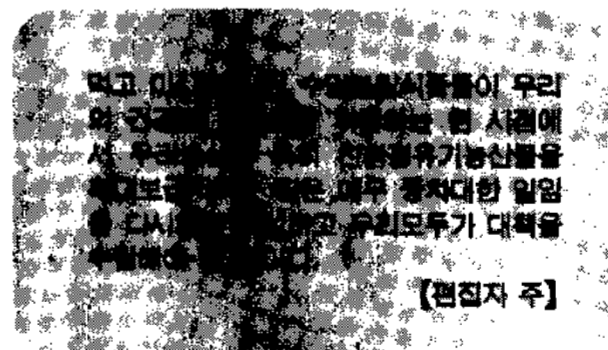
- 머리맡
- ② 웃음의 비밀
- ③ 웃음에 대한 의학계의 검토
- ④ 웃음이 주는 효과를 요약해 본다면
- ⑤ 증상별 웃음 처방 결과
- ⑥ 억지라도 웃어야 할 이유
- ⑦ 웃는지
- ⑧ 맺음말

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 이 클럽은 뭄바이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클럽을 창설한 카타리나 의사부부는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익히 잘 알려진 것을 실천한다. 웃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고 수줍음을 없애주고 우울증을 따아준다?" 하지만 그 유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한두차례 배꼽을 잡고 웃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또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건강을 주었던 웃음이 이제 와서 새로운 건강 치료제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현재 인도에는 전국적으로 2백 50여개 웃음운동 클럽이 활동 중이다. 필자는 인도에 가서 웃음요가를 체험하고 돌아왔는데,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음호에 계속

저가공세에 맥 못추는 국산농산물



농촌이 공동화되고 도시가 확산되는 산업사회의 전환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동안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해 젊은 인력이 농촌에서 떠나버린 지금의 농촌은 그야말로 극도로 열악한 노령화로 인해 농촌 제반의 여건은 역참을 무너지게 만든다. 점점 어려워진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정책들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해진 것이 한두건이 아니었다.

일례로, 귀농정책만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97년 당시 IMF로 인해 많은 근로자와 도시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니까 귀농을 장려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없이 귀농이라는 달콤한 시탕발림으로 수천만원씩 대출해 준 결과는 농업농촌을 그나마도 어렵게 지켜온 부모 형제에게 모두 부채로 남겨놓고 1~2년 후 몸망 상경해버려 가족이나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제를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다. 아무리 적은 것이든 간에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 그 충격이 크지 않을 터이지만 그때그때 불합하여 얻어두면 당장은 이상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최근엔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갖가지 수입농산물이 명품성이 강한 화학물결과 중금속이 함유된 조원해서 마구잡이로 검출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무엇을 했으며 농림부는 사전 검역당국에 무엇을 지시했는지 눈만 뜨면 부정 불량식품에 불안 공포로 떠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정부당국자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책을 살피고 마구잡이로 수입되는 먹물거리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안전검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나라 농업의 유일한 경쟁력이며 대안인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농업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성의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도시



정경연 (본협회 유동국장)

의 소비자들도 친환경유기농산물이 관행농산물에 비해 가격면에서 차등과 편을 인식시켜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생산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일조하고 자연생태계 회복운동으로 자부심을 갖을 때 이 나라 삼천리금수강산과 온 백성은 패자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두세배의 가격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무도 유기농산물을 가격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생산자로부터 정부 당국자·소비자들까지 제대로 인식하고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인들과 농정당국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표본삼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주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국민건강증진과 우리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해야